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및 교리탐구
 넷째주 일요일 11 시 반야심경 사경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모든 기쁨 맛보신,
 영원의 길 저쪽에서 거니시는 부처님을
 속세의 어떤 길로 유혹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승리는 패배로 이끌 수 없고,
 아무도 부처님을 제복할 수 없네.

By what earthly path could you entice the Buddha who, enjoying all, can wander through the pathless ways of the Infinite? – the Buddha who is awake, whose victory cannot be turned into defeat, and whom no one can conqu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불교와 현대사회 • 다이어트

과식.거식은 ‘금물’...중도적 실천이 ‘관건’

미시적인 것이던 거시적인 것이던 현대사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들은 대개 서로 연관돼 있어 단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속에 현대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매주 ‘불교와 현대사회’코너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해법을 경전에서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로 다이어트를 택했다.

서기 2005년 현재 한반도 남쪽은 ‘살과의 전쟁’이 한창이고, 북쪽은 ‘쌀과의 전쟁’에 매달려 있다. 남쪽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영화,드라마에 나오는 날씬한 배우들처럼 되고 싶어 안달이다. 반면 북쪽은 쌀이 부족해 야단이다. 북쪽이 ‘쌀’을 구해 ‘살’찌고 싶어 한다면 남쪽은 ‘다이어트’에 열성적이다. 매력적인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이든, 건강하고 싶어서이든, 남쪽은 다이어트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다.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는 “미용.건강을 위해 살이 찌지 않도록 섭취하는 규정식, 혹은 살이 너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다. 때문에 다이어트는 음식,비만과 관련이 있다. 체질적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과식(過食)하거나, 먹는 시간 이외 자주 먹기에 살이 찐다. 살찌는 것 즉 ‘비만’은 건강의 적신호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많이 먹어도 운동으로 열량을 빼버리면 살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은 또 다른 부지런함을 요구하기에, 먹고 운동하기를 반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경전에 해답이 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비만은 게으름이나 욕심과 관련 있기에, 무욕(無慾),절욕(節慾,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불교에 다이어트 관련 일화가 없을 수 없다. 잡아함 제 42권 ‘천식경(喘息經)’에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가 전한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이야기 주인공이다.

부처님이 사뭇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오후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왕은 숨을 헐떡거리며 몹시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부처님께 문안드렸다. 부처님이 까닭을 물었다. 파세나디왕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숨이 가빠질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점심식사 때도 맛있는 음식이 있길래 많이 먹었지요. 많이 먹어 그런지 자꾸 살이 찌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고 땀도 많이 납니다. 몸집이 비대하다 보니 창피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소연을 들은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계송을 하나 지어 주었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부처님이 왕을 만나던 그 자리에는 시종인 율타라가 있었다. 왕은 그에게 자기가 식사 할 때마다 이 계송을 외워 달라고 했다.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식사 때마다 시종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대왕은 계송을 들을 때마다 먹는 양을 줄이고 과식을 피했다. 몇 달을 그렇게 하자 살도 빠지고 용모도 단정해졌다. 몰라보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왕은 기쁨에 넘쳤다. 왕은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처님은 저에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케 해 살이 빠지게 했으니 현세에서 이익을 주신 것이요, 또한 중도(中道)의 법을 알게 하셨으니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남전(南傳)인 <쌍윳따니까야> 제 1권 제 3 ‘코살라’에도 있다. 내용은 잡아함과 대동소이하다. 부처님이 사뭇티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핀디가 승원에 계실 때였다. 당시 코살라국 파세나디왕은 ‘뒷박 분량’의 많은 밥을 먹었다. 파세나디왕이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숨을 몰아쉬며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은 파세나디왕이 식사를 마치고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송을 읊었다. “언제나 마음에 새겨서/식사에 분량을 아는 사람은/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목숨을 보존하여 더디 늙어가리.” 그 때 파세나디왕 뒤에는 수닷사나가 서 있었다. 파세나디왕이 수닷사나에게 말했다. “자아 수닷사나야. 너는 부처님께 이 계송을 배워 나의 식사 때마다 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수당으로 아침에 50 까하빠나, 저녁에 50 까하빠나씩 배풀어 줄 것이다.”

수돗사나는 파세나디왕이 식사 할 때마다 계송을 읊었다. 왕은 차츰 ‘한 접시 분량’의 음식에 만족하게 됐다. 날씬해진 파세나디왕은 손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노래했다. “참으로 부처님은 현세의 유익함과 미래의 유익함, 두 가지 유익함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셨네.”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든 비만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였다. ‘운신할 때마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뚱뚱했던 파세나디왕의 예가 대표적이다.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적절한 다이어트로 파세나디왕은 살도 빼고 80 살까지 살았다.

먹고 싶은 욕망(食慾)은 성욕(性慾)과 함께 인간의 2 대 욕망이다. 먹어야 살기에 음식 먹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식탐’(食貪)이 문제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않는 만큼 또 살이 쪼다. 쪼다 살은 결국 자신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오늘날에는 비만인 사람이 특히 많다. ‘패스트푸드’ 등 열량 높은 먹거리와 먹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도 적절하게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문제만 불러온다. 경전에 나오는 대로 ‘마땅히 음식 양을 헤아려’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을 해칠 정도의 다이어트는 역효과만 일으킨다. ‘A Song For You’ 등을 부르며 세계 팝송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펜터스(Carpenters) 멤버 카렌(미국)이 다이어트 하다 죽은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도 다이어트하다 죽은 사람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온다. 살 빼기가 중요하다고 목숨까지 거는 것은 무모하다.

다른 가르침처럼 부처님은 다이어트에도 ‘중도’를 도입했다.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 모자라도 안 되지만 지나쳐도 안 된다는 것이 중도의 핵심. 불교적 실천에서 늘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중도다. 과식(過食)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식(拒食)하는 것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영양실조가 될 정도로 굶는 것은 분명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못된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생활태도’를 실천했기에 파세나디왕은 살 빼기에 성공했다.

어떻게 하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까. 항상 조금 모자란 듯 할 때 음식을 그만 먹으면 된다. 저울의 눈금이 넘으면 그르치기 십상이다. 다이어트 할 때도 중도를 지켜야하고, 중도적 실천을 따를 때 몸도 날씬해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 다이어트에는 중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파세나디왕의 일화가 증명한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일이: [수행현장 탐방] 도심 속 간화선 수행처 ‘묘심선원’

성철스님 수행법 따르는 24 시간 시민선방

“초심자가 일으키는 의심은 아주 거칠어서, 문득 끊어졌다 이어지며, 금방 익은 듯하다가 설어지니, 의정(疑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날뛰던 마음을 거둬들이면 염두(念頭)에 어떤 의심덩어리가 잡혀 비로소 참구(參究)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공부할 요량이라면 진정한 의심이 일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난 1 일 오후 2 시, 서울 동작구 사당 1동에 위치한 해인사 백련암 서울선원인 묘심선원. 24 시간 운영하는 시민선방답게 하안거가 끝난 산(散)철 기간에도 참선공부가 한창이다.

‘딱! 딱! 딱!’ 주지 일문(日門)스님의 죽비소리에 조금 전까지 나무그늘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던 거미마저 미동을 멈췄다. 도심 가까이 위치한 선방이지만 간간이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소음과 방과 후 집을 향해 뛰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도 선방까지 침범하지 못했다.

“공부가 무르익으면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고,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며,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의심이 생겼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의심 하십시오.”

기억마저 잊혀진 침묵이 흐른 1 시간. 빗어 넘긴 귀밑머리 사이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가려울만도 하건만 미동도 없다. 참선 후 포행시간. 주지스님이 재차 “철저히 간절히 수행에 임할 것”을 주문하자 간간이 들리던 침 삼키는 소리가 끊겼다.

퇴옹 성철스님의 상좌 원용스님이 1999년 창건한 묘심선원은 참선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24시간 개방된 선방이다. 재가불자들 사이에서는 성철스님의 수행법을 그대로 따르며 철저한 수행을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청규(淸規)도 선방 수좌스님들과 같다. ‘화두참구를 수행방법으로 한다. 선방 안에서 묵언을 한다. 도반 상호간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선방수좌로서 절도와 품위를 지킨다.’ 사실, 묘심선원의 선방은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도, 염불, 교리 등 불교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선원의 스님이 주는 화두를 받은 불자들만이 선방에 드나들 자격이 생긴다. 나이는 그리 중요치 않다. 30대에서 60대의 연령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아들 입시기도를 위해 올 초 묘심선원을 찾았던 이미정(47, 법명 광덕행)씨는 어느새 간화선(看話禪) 예찬론자가 됐다. 이씨는 “나와 가족들만을 위하던 기도가 참선을 하면서 이제는 나와 주위 이웃 그리고 사회를 위한 기도로 변화했다”면서 “화두를 들고 의심에 집중하면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 기분”이라고 행복해했다.

진정한 의심은 ‘번뇌 망상을 제거할 줄 알고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이씨가 나름대로 찾은 해답. 그로부터 이씨는 매사에 근원을 캐묻고 긍정적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됐다.

원용스님으로부터 ‘마삼근(麻三斤)’ 화두를 받고 올해 참선공부 6년차에 접어든다는 최정희(56, 법명 보리원)씨는 “화두를 받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지만 번뇌를 끊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며 이 씨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마음을 찾기 위해 참선을 한다는 59세의 이점순(법명 공덕화)씨도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간화선은 안정맞춤”이라고 말했다.

10분의 휴식이 끝나자 주지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40여명의 재가불자들은 다시 1시간의 참선에 빠져들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마주친 그들의 얼굴은 한가득 웃음을 머금어 마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그것과도 같았다.

불자의 수행과 수행생활

1. 수행과 기도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러한 행복과 해탈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과 해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폭류처럼 흐르는 마음을 잘 다스려 걸림이 없는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근 만근이나 되는 업장을 소멸하고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서 불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수행과 기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지혜를 얻어 윤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수행이라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윤회를 끊어 해탈에 이르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지요. 전자가 자력적이라면 후자는 타력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절대자 및 신을 향하여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간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없애고 복을 얻도록 부처님이나 신에게 비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무작정 절대자에게 바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강합니다. 나아가 그런 다짐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굳세고 튼튼해져 쉽게 좌절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과 기도에서 모두 요구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집중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집중 속에서 깊은 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 삼매의 경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이라면 가피력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삼매에 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매에 들어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는

간경·사경·염불·진언·절·참회·정근을 통한 수행과 기도 및 수식관·부정관·자비관·간화선등의 여러 가지 참선법이 있습니다.

간경(看經)이나 사경(寫經)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보고 읽고 쓰거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염불(念佛)이란 불보살님의 이름이나 모습, 그 본래의 마음을 관하거나 부르면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요, 진언이란 부처님의 말씀 중에 참말씀을 외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절하면서 귀의하는 것이 **108 배, 1080 배, 3000 배** 등의 절입니다. 특히 염불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쉬지않고 수행한다 하여, 이를 정근(精勤)이라 하지요. 이러한 정근을 통해서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켜 마음이 맑아지게 됩니다. 비단 염불뿐만 아니라 간경·사경·진언·절 그리고 기타 수행법에도 이렇게 쉽없이 정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삼매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나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참회(懺悔)입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온갖 잘못된 편견과 행위, 독선에 가득찼던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참회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고 해서 참회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기도 내지는 수행의 방법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참선은 대표적인 자력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입니다. 참선(參禪)이란 선에 들어간다는 뜻이며 선이란 정신 집중을 통해 고요히 사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에 들어가는 참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관법(止觀法)이 있습니다. 지관법이란 마음의 동요를 그쳐(止)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는 것(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식관(數息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등이 있습니다.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들고 의심 해 들어가 마침내 그 화두를 타파하여 내 본래 모습이 부처님임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법회소식 NEWS

- 불국사 (영어명: Buddhanara Temple)는 대한 불교 조계종에 사찰 등록이 되어있고, 미국에서도 종교법인 등록 (2000 년 7 월) 과 IRS 에 “Federal Income Tax Under Section 501 (C) (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및 “Exemption from Missouri Sales and Use Tax on Purchases and Sales” 를 모두 통과한 사찰입니다. 미국에서 시주하신 분들은 매년 Tax Return 에 필요한 Donation 내역서를 사찰에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 시주하신 분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시주금 내역서를 신청자에 한해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ax Return 건 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사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국사에 신도증 발행건에 관한 공문이 왔습니다. 신도증을 발급받게 되면 어떤 신도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신도의 의무:
삼보를 호지할 의무, 보시 및 지계의 의무, 상구보리하와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의무, 종법령에서 정하는 신도 교육과 법회에 참석할 의무,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본종의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 본종의 종지에 입각하여 포교할 의무, 종단 및 사찰의 외호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 기타 조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 2) 신도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종단 또는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 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 신도회 또는 신도 단체를

신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관람료 징수 사찰 무료 입장 및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종단과 사찰의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권리.

대한 불교 조계종에 신도 등록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증명사진 2 매와 교무금 (미국: \$10, 한국: 10,000 원), 신도 등록서를 작성해서 미국은 불국사로 한국은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로 접수해 주십시오. 일괄 접수를 받고 불국사에 소속된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찰 직인을 찍은후 대한 불교 조계종 포교원으로 일괄 접수 됩니다. (교무금 매년 납부해야 되고, 교무금은 포교, 복지, 사회 문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교원에서 각 사찰로 신도증이 발송되는데는 약 15 일이 소요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신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9 월 3 째주는 교리탐구의 주 이기도 하고 한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날 은 신도님들 각자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불교 수행법에 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교리탐구는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는 장입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9 월 14 일은 세인트루이스 지역 의 불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St. Louis Buddhist Council Meeting" 불국사에서 저녁 7 시에서 8 시 30 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찰에 오시는 신도님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회의에서는 가을에 워싱턴 대학에서 열리는 "Mindfulness Day"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오갈 것입니다.
- 양력 8 월 19 일 (음력 7 월 15 일)은 백중 (우란분절) 이었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 월 14 일 (음력 7 월 10 일)부터 양력 8 월 21 일 (음력 7 월 17 일)까지 7 일간 선방부모, 일가친척, 수자영가님등 인연있는 53 위 영가님들 위패를 모시고 일주일간 천도 기도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모든 영가님들이 모두 극락 왕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2005 년 백중기도 기도 동참금은 \$1000.00 인데 그중 기도입재 꽃값 \$100 과 입재와 회향에 사용한 총 비용 \$325.98 을 모두 제하고 \$574.02 이고 한국에서 받은 기도비는 965,000 원인데 비용 100,000 원을 제하고 865,000 원입니다. \$574.02 은 좋은 날 을 정해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할 생각이고, 한국에서 백중기도 동참금 865,000 원은 서울 파고다 공원에 모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등 노숙자들에게 식사 공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대중공양 날짜는 불국사 주지스님이 한국에 법회차 오시는 10 월 말이나 11 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 식사 배식 자원 봉사를 원하시는 불자님들 께서는 서울에 있는 불국회나 미국 불국사로 연락 주십시오.
- 불국회 총괄을 맡고 계신 백련화 김효례 보살님과 불국회 회원인 법왕자 박계영 보살님께서 북한 금강산에 위치한 신계사 복원봉사를 돕기 위해서 8 월 한달간 자원봉사를 모두 마치고 8 월 30 일날 한국으로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현재 신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서 남과 북이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6.25 전쟁으로 많은 전각이 소실된 것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불자라고 한다면 한국 불교 역사의 한축을 지탱하는 선방이자 기도도량인 신계사 복원봉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 께서는 불국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8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85 번 무자생 목영옥, 286 번 기축생 선법장 윤선정, 287 번 신유생 목문석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불국사에서는 10 월까지 지봉 불사 기금 모금을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